

농촌 문화경관 관련시책과 마을숲·당산숲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초연구

최재웅* · 김동엽**

*농업과학기술원 농촌자원개발연구소 · **성균관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Policy for Rural Cultural Landscapes and for Enhancing the Value of the Rural Community Groves and Dangsan Groves

Choi, Jai-Ung* · Kim, Dong-Yeob**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ational Institute of Agricultural Science &
Technology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Sungkyunkwan University

ABSTRACT

Rural areas dominates the country landscapes in size with less population and rich traditional heritages as well as natural landscapes. Rural community groves (RCG) and Dangsan groves have been established by community residents during a few hundred years, and most of them have been disturbed. Only a few RCGs and Dangsan groves remain for an extensive period with efforts from community residents. These remnant RCGs and Dangsan groves are highly evaluated representing Korean rural cultural landscapes. Sound understanding on the structure of the rural landscapes and their role on the rural community environment is required to provide an appropriate policy for managing rural landscapes.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RCGs and Dangsan groves in the cultural landscapes, to investigate policies and issues of the advanced countries on RCGs and Dangsan groves, and to overview domestic policies for rural landscapes.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there is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RCGs and main issues discussed in EU countries. Ministry of Agriculture & Forestry of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and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have to focus on the potential of RCGs and Dangsan groves for multi-functions of agricultural and rural areas, natural streams, rural amenity, direct subsidy for landscape preservation, and rural tourism.

Corresponding author: Jai-Ung Choi, Rural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e, NIAST, RDA, Suwon 441-853, Korea, Tel.: +82-31-299-0541, E-mail: choiju@rda.go.kr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suggests that RCGs and Dangsang groves will provide benefits to develop rural-mountain-sea villages and to enhance country's landscapes as well as local landscapes.

Key Words: Korean Cultural Landscape, Heritage, Multi-function, Landscape Preservation, Management Policy

1.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논의가 활발한 『경관법안』 등의 농촌경관 관련 시책은 우리 농촌경관의 보전·관리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경관법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를 보면, 경관법의 현안 과제는 도시계획수립 단계별 요구에 맞게 경관계획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명확한 경관계획의 내용이나 목적, 범위·규모가 구분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라는 지적(최일홍, 2005: 10)이 있으며, 일본의 경우 경관계획은 전통경관의 보전에 대한 시민운동에서 출발해 주민 스스로 경관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시민문화가 성숙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관협정제도 등이 정착되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법제도적 장치만으로 경관을 만들어 가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우려(이정형, 2005: 29)와, 시민·주민과 함께 하는 경관사업 이행이 필요하다는 견해(목정훈, 2005: 47)도 있는데, 경관법·경관계획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요구되는 점은 일반시민과 주민의 경관보전 의지와 역량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건설교통부의 『경관법안』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2006. 7. 18일), 농림부의 『경관보전직불제』, 환경부의 『국토환경관리종합계획』 등 여러 부처에서도 농촌경관 관련 시책·사업이 양산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의 『경관법안』은 농촌경관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부족했으며, 그동안의 경관법 관련 논의가 도시경관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었다. 이 법의 중요한 대상은 우리 국토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경관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와 농어촌지역의 77%가 숲과 산림으로 되어 있다. 환경부, 농림부 등의 부처에서 마을숲·당산숲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 농촌은 인구는 적으나 국토경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자연경관과 전통생활문화가 남아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우리나라 40,000여 농촌마을 중 상당히 많은 수가 사라진 마을숲·당산숲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평가되고 있다. 마을숲·당산숲은 수백년 전에 마을 주민들에 의해 조성된 후, 현재까지 오랜 기간 동안 마을 주민들이 보전·관리하고 있는 전통경관이며 살아있는 문화공간이다.

우리나라 국토공간, 특히 농촌지역의 공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또한, 그러한 농촌경관이 농촌주민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하고 국토환경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올바른 농촌경관 관련 시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농산어촌의 마을주민들이 대(代)를 이어 그 문화적, 당산제(堂山祭)와 함께 불문율(不文律)에 의해서 수백년 이상을 가꾸고 지켜 온 마을숲·당산숲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문화경관이며, 농촌마을의 중요한 경관구성요소로서, 국토계획, 국토환경관리 측면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국토보전의 문제에 귀중한 물리적 실체로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최재웅과 김동엽, 2003). 그러기 위해서는 마을숲·당산숲이 농촌마을 주민들만의 인식으로부터 일반 도시민에게 확대되어 그 실체와 가치를 스스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사회인식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농촌경관을 논하는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마을숲·당산숲이 일제 강점기, 6.25사변, 새마을운동으로 대표되는 전통 단절기에 크게 훼손된 것이다. 참고로, 강원도 영월군, 경남 통영군, 경북 포항시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마을 지명'을 검색해 보면 각 마을의 유래와 함께 이러한 시기에 마을숲·당산숲이 어떻게 훼손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그 후 시련기를 극복하고 현재까지 마을숲·당산숲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 마을 주

민들 외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마을숲·당산숲의 존재가 인식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것은 『경관법안』 등을 다루고 있는 행정부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마을숲·당산숲의 존재와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위의 여러 물음에 대해서 답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이창석과 유영한, 2001: 327; 최재웅과 김동엽, 2005a: 33-34, 41). 이 논문의 연구목적은 경관법안을 비롯한 농촌경관 관련시책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농촌마을 마을숲·당산숲의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그 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보다 나은 농촌경관의 증진을 위한 논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2. 연구사

마을숲에 대한 연구는, 농촌경관의 형태적 연구(유제현, 1979), 안동 내앞마을의 개호송을 사례로 한 전통촌락의 동수(洞藪)에 관한 연구(김덕현, 1986) 등을 시작으로 지리학, 조경학, 임학, 생태학, 민속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김학범, 1991; 이원열 등, 1992; 장동수와 이규목, 1997; 윤영환 등, 1998; 박재철, 1999; 최재웅과 김동엽, 1999). 김학범(1991)은 전국 100여개의 마을숲을 조사하여 특성, 가치 등에 대하여 논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인 마을숲 실태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 바 있다. 이창석과 유영한(2001: 326-327)은 “생물 다양성은 주변에 잔류하고 있는 자연경관의 파편에서 보다 문화경관에서 종종 더 높으며, 이런 점에서 문화경관은 생물 다양성의 창고이자 인간의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의 지혜가 결집된 공간이 될 수 있다”는 Naveh(1998)의 연구 사례를 소개하였으며, 또한, 문화 전승의 장으로서 문화경관과 그 활용을 위한 제안에서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생활환경보전림 즉, 마을숲·당산숲의 맥을 잇는 것을 권하고 있는데, 그들 대부분이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지만 그것들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된다면 그들은 귀중한 문화자원으로 우리 앞에 재등장할 것으로 기대하였다.

경관법과 관련하여, 이희정(2005: 84)은 “우리나라의 경관관리가 도시계획적 체계하의 많은 법률에서 제어되고 있으며, 도시계획제도하의 경관관리가 건축물,

구조물의 경관을 보전, 유지 등 인공건조물 위주의 규제를 통해서 경관형성을 하고 있으나, 아름다운 경관형성을 위해서는 인공건조물 이외에 자연경관, 역사경관, 문화경관 등 다양한 경관개념을 포괄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하였는데, 근본적으로는 앞으로 제정될 경관법은 이러한 자연경관, 역사경관, 문화경관 등이 위주가 되고, 인공건조물 등도 포괄하는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최일홍(2005: 13-14)은 경관법 제정 시의 쟁점으로서 경관법의 법적 지위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 경관을 모든 국토계획의 최상위 가치라고 인정하는 접근방법, 둘째, 경관계획 및 관리를 도시기본계획 등과 대등한 지위를 갖는 개별법으로 하는 방법, 셋째, 굳이 경관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내에서 경관 관련 규정들을 보완하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특히, 경관을 모든 국토계획의 최상위 가치라고 인정하는 접근방법의 경우에는, 환경문제가 심각한 현 세대에서는 인간의 생존과 관련된 건강한 생태환경이 오히려 경관보다 더욱 상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논리도 제기 가능함을 지적하였다. 그런데, 도시경관과 달리 농촌경관에서의 경관은 환경과 동떨어진 별개의 것이 아니고 경관 자체가 곧 환경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이창석과 유영한, 2001: 324-325; 최재웅과 김동엽, 2005a: 33-34, 48-49). 생태환경이 경관보다 상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식의 이분법적인 논리는 도시경관에서는 논의할 수 있으나, 농촌경관에서는 경관과 생태환경을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성주인(2005: 118)은 농촌경관을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의 농촌을 특징지를 만한 대표적인 경관이 어떤 모습인지 합의된 상(象)이 없다는 점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한다”고 하였는데, 농촌의 경관관리 정책 과제로서 ‘농촌 경관자원조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한데 매력적인 요소를 파악하는 것 이외에 개선을 요하는 경관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편, 국제경관생태학회에서는 생태계에 미치는 인간활동과 사회 및 문화경관의 개념을 중시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학문 분야의 제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里山(satoyama)은 마을 주변 산의 경사면에 있

는 잡목숲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들을 땃나무, 솥 등을 얻기 위해 관리해 왔다. 농촌의 문화경관과 생태적 지속성을 증시하는 세계의 흐름에 맞추어서 里山의 전통 문화경관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하고, 里山이 갖고 있는 농촌경관, 경관생태, 생태보전의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보전과 회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里山은 다양한 자연환경의 모자이크로 이루어져 있으며, 넓은 의미에서 삼림, 하천, 논, 관개용 연못 등도 '里山 경관'에 포함된다(Ta-keuchi *et al.*, 2003).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름 붙이고 있는 '마을숲'은 대부분 마을숲과 당산숲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고 있는데, 최근 「당산숲」의 개념이 분리되어 해석되고 있다(Choi and Kim, 2004: 435-438). 최재웅과 김동엽(2005a: 41, 53)은 우리 농촌마을의 중요한 경관 구성 요소로서 농촌경관을 논할 때 핵심사항이 마을숲·당산숲인 것을 강조했으며, 마을숲·당산숲의 유무에 따른 하천환경을 비교·고찰한 결과, 마을숲·당산숲이 있는 하천환경은 앞으로 한국형 하천경관 관리의 모범이 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한편, 대통령자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는 제70회 국정과제회의에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의 기본개념을 "전통과 숲이 있는 마을로서 기초생활환경 시설과 교육·복지·문화 서비스가 충실하며, 이주도시민과 지역주민이 더불어 살아가는 새로운 공동체 문화가 형성된 공간"으로 명시하고, 『농어촌마을의 핵심경관』으로서 마을주변 숲의 활용을 확대하며, 마을숲을 경관자원, 휴양·휴식공간 및 소득원으로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II. 연구방법 및 내용

이 연구는 마을숲·당산숲의 기능과 위상에 대해 재조명·분석하여 그 가치를 이해·제고함으로써, 우리나라 농촌마을의 마을숲·당산숲이 경관법안 등 농촌경관 관련 시책에서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대상이라는 논리를 제공하고, 농촌마을의 생활환경과 국토환경을 건강하게 보전·발전시키는 방안을 찾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1999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까지 계속되고 있는 마을숲·당산숲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그 간의 연구는 한 지역을 집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전국을 대상으로 산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고찰한 내용은 첫째, 농촌의 문화경관과 관련하여 마을숲·당산숲의 요체와 특성 이해, 둘째, 농촌경관과 관련한 선진 외국의 논점 및 정부의 농촌경관 관련시책에서 마을숲·당산숲의 관련성 분석, 셋째, 농촌경관 관련 시책의 문제점 고찰 등이다. 농촌경관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유럽연합(EU)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이슈, 논점과 관련하여, 마을숲·당산숲의 관련성, 역할은 크게 다섯 가지 면에서 살펴보았는데,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자연형 하천, 농촌 어메니티, 경관직불제, 농촌관광자원과 관리 주체에 대한 것이다. 이들 항목은 현재 농림부, 환경부, 농촌진흥청 등 정부 부처에서 공통적으로 중요시하고 발전시키려고 하는 개념들인데, 이들은 서로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그 내용에서 중첩되는 부분이 많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으로 이들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체로서 마을숲·당산숲이 우리나라 농산어촌 발전, 국토환경 및 경관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제시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마을숲·당산숲의 요체·특성 및 문화경관

1) 문화경관

OECD(2001: 368)는 경관을 자연경관(natural landscape)과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으로 구분하였는데, 문화경관을 "인간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한 결과물"로 정의하고 있다(그림 1 참조). OECD는 농업환경지표(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와 관련하여 문화경관의 개념을 중시하고 있는데, 그림 1의 가운데 진한 부분이 OECD에서 농업경관지표(agricultural landscape indicators)로서 주목하고 있는 분야이며, 농업경관의 세 가지 주요 요소로서 '구조, 기능, 가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농촌마을 주민들이 오랜 세월을 걸쳐 자연에 순응·적응하면서 만들고 지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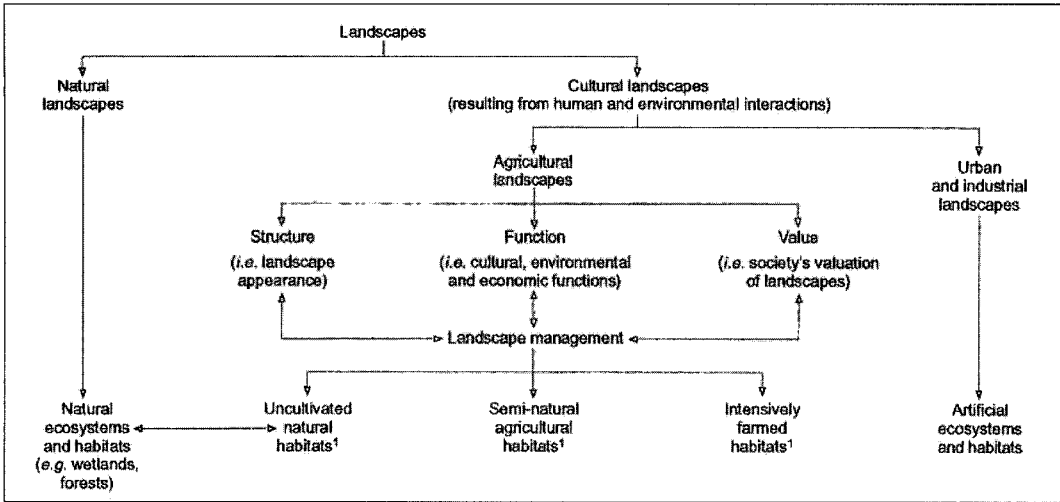


그림 1. OECD에서 정의한 농촌의 문화경관

은 우리의 마을숲·당산숲은 이 개념과 일치한다.

문화경관과 관련하여 조사, 발표된 OECD의 자료(2001:377)를 보면, 각 나라 문화경관의 종류와 수량이 나타나 있는데(Cultural landscape features on agricultural land: 1985 to 1998), 일본은 1985년에 계단식은 220,000 ha를 신고하였고, 영국은 1985년에 관리형 생물타리 563,100km 외에 다른 종류도 여러 가지 신고하였으며, 기타 여러나라의 자료가 있다. 경관지표와 관련하여 OECD(2003)에서 회원국을 대상으로 각 나라의 문화경관을 조사, 보고하도록 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마을숲·당산숲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OECD에 보고하여 인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자료는 농업 관련 국제협상에서 우리나라 농촌의 현실을 잘 알려줄 뿐 아니라, 관광 등 산업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일본은 이 문화경관을 '문화적 경관'이란 말로 표현하는데, 문화적 경관의 규제내용을 경관법에서 다루도록 하고 있다.

유럽연합이나 국제경관생태학회 등에서는 이러한 문화경관을 '박물관 경관(Museum landscape)'과 '실생활에 살아 있는 문화 경관(Living cultural landscape)'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실생활에 살아 있는 문화경관'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으며, 산업화 과정에서 소멸된 문화경관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우리의 마을숲·당산숲은 '실생활에 살아 있는 문화경관'으로

서의 가치를 갖고 있다.

2) 마을숲·당산숲의 요체

도시민 등 많은 사람들이 그 실체를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농촌마을에는 마을숲·당산숲이라는 훌륭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는데, 주민들이 마을의 보물로 여기고 그 문화와 함께 소중히 지켜온 마을숲·당산숲은 우리 농촌마을의 귀중한 부존자원 즉, 녹색생태문화자원·역사경관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갖는 국가적 문화자산으로 평가되고 있다. 수백 년 이상의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숲·당산숲은 사람에 의해 식재된 인공림으로서 주변의 자연식생과는 구별되며, '수구(水口)막이'라 하여 대부분 하천변에 위치한 수변림(水邊林)이라는 특징이 있다.

고지도를 보면 훼손되기 이전의 우리 전통숲의 모습을 개략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다. 그림 2는 「조선후기 지방지도(규장각 소장)」로서, 인공숲(藪)을 중심으로 나타내 본 것이다. 좌측은 전라남도 광양縣(현) 지도이고, 우측은 경상북도 영천郡(군) 지도이다. 이 경우는 관(官)에서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에도 마을주민들을 동원하여 조성하였을 것이다. 광양현 성곽 아래 하천변에 서쪽숲(西藪)과 남쪽숲(南藪)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숲의 바로 아래쪽은 남해 바다로서 성의 좌우측 하천이 바다로 흘러간다. 이 숲은 하천 범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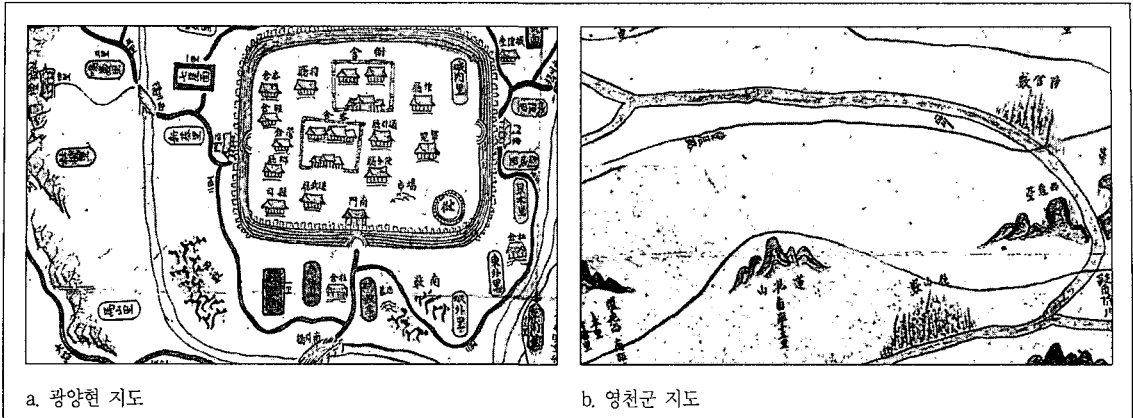


그림 2. 조선 후기 지방지도에 나타나는 인공숲의 모습

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고 또한, 일본 왜구의 침략에 대비해서 바다로부터 성이 보이지 않도록 은폐시키기 위해 만든 것으로 보인다. 영천군의 경우에도 하천변 세 곳에 띠형으로 숲이 조성되어 있는 것이 보인다. 마을숲·당산숲은 서로 별개로 있기도 하고, 당산숲이 마을숲의 역할을 겸해서 하나로 있기도 한다. 개념도는 그림 3과 같다. “당숲”으로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당산숲은 『당산제(堂山祭)를 지내는 숲』으로서, 토속신이 살아 있는 마을의 성역이며, 대부분 음력 정월대보름 저녁에 거행되는 당산제는 일종의 물활론(物活論, animism)적인 전통생활문화이다(최재웅과 김동엽, 2005a: 40). 마을숲은 당산숲과 별도로 자연재해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마을숲에서는 일반적으로 당산제가 행해지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마을숲은 당산숲과 구분되어 존재하는 마을숲을 말하는 것이며 당산제가 폐지되고 마을주민이 관리를 포기한 채 방치되기도 한다.

당산제는 1년에 1~2번 정기적으로 당산숲에서 지내는 마을제사 또는 마을축제로서, 당산제 기간 외의 나머지 기간에도 1년 내내 마을숲·당산숲을 아끼고 보전하며 살아가는 마을주민들의 생활양식이다. 동제(洞祭)인 당산제는 마을주민 전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여 마을의 안녕과 평화·풍년을 기원하고, 조상과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출하는 마을공동체 축제행사로써, 당산숲내의 당산목이나 성황당, 돌담앞에서 제를 올림으로써 이루어지며, 행사 날짜는 음력 정월대보름이 가장 많다. 대부분의 마을숲·당산숲은 당산제 기간 외에는 마을 주민들의 쉼터로 이용되고 있다. 전국적으로 볼 때 현재 잘 남아 있는 마을숲·당산숲들은 나뭇잎 하나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는 마을 자체의 불문율에 의해서 보전되고 있다(최재웅과 김동엽, 2003: 180).

당산제는 그 자체만으로도 살아 숨쉬는 우리의 전통 생활문화, 건강한 미풍양속의 공동체 문화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마을주민들이 마을숲·당산숲을 지켜나갈 수 있게 해 주는 원동력 역할을 하고 있다. 당산제를 통해 마을주민들이 가치를 부여하고 보호·관리함으로써 마을숲·당산숲은 생명력을 얻게 된다. 당산제가 중요한 이유는 그 자체가 살아 있는 전통생활 문화로서 마을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사라지면 숲은 마을주민들의 애착심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훼손을 당하기 쉽고, 결국에는 소멸될 우려가 많기 때문이다. 당산제는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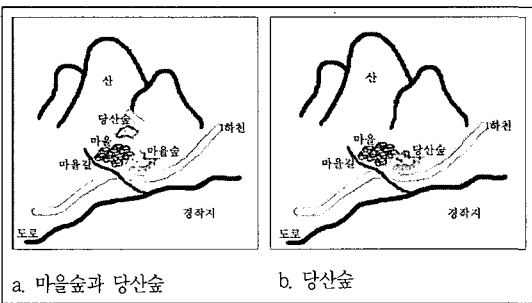


그림 3. 마을숲·당산숲의 개념도

문화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의 실생활에 거의 유일하게 남아 있는 귀중한 공동체 문화이다.

김학범은 마을숲이 대부분 경관이 우수하고 그늘이 좋으므로 휴양욕구 수용을 위해 하안지역 마을숲이 개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고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농촌마을에는 상당수의 마을숲이 그 실체를 유지하고 있으며, 약 15년여에 걸친 조사 결과, 전국에 약 400여 개소의 마을숲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는데, 아직 조사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훨씬 많은 마을숲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마을숲의 보전과 복원은 자연형 하천과 같은 친환경 조성의 맥락에서 전통문화까지 함께 접목되는 생태문화공원으로 발전되어야 하는데, 마을숲이 점점 훼손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전통문화에 대한 의식의 약화가 근본 원인으로 마을숲의 실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어떤 조치보다도 마을숲에 깃들어 있는 문화적 의미와 행위를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였다(2005: 8, 20-22). 이상훈은 2002년 조사 시 진안지역에 80여 개의 마을숲이 현존한다고 하였는데, 마을숲의 상징적인 기능은 당

산나무에 대한 신성성이 잘 남아 있는데서 찾아볼 수 있고, 실제적인 기능은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 천변에 조성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고 하였다(2005: 23, 27, 31-51).

최재웅과 김동엽은 당산목, 돌탑, 성황당 등 당산숲의 3대 경관 구성요소를 보고한 바 있는데(2000: 54-55), 돌탑과 성황당이 없이 당산목 및 수목만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강릉시 구정리의 당산숲과 같이 세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그림 4는 좌로부터 강릉시 구정리, 장수군 원송천리, 화순군 벽송리로서 당산목, 돌탑, 성황당 등이 있는 당산숲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는 당산제를 비롯한 문화활동으로서, 좌로부터 원주시 성남리의 당산제, 화순군 동산마을에서 당산제 하루 전에 마을 주민들이 미리 숲을 청소하는 모습과 평소의 이용 모습이다.

3) 농촌마을의 경관구성요소 및 농촌경관의 핵심 농경이 시작된 이후 수목 띠가 확산되었고 많은 경관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요소가 되었는데, 농촌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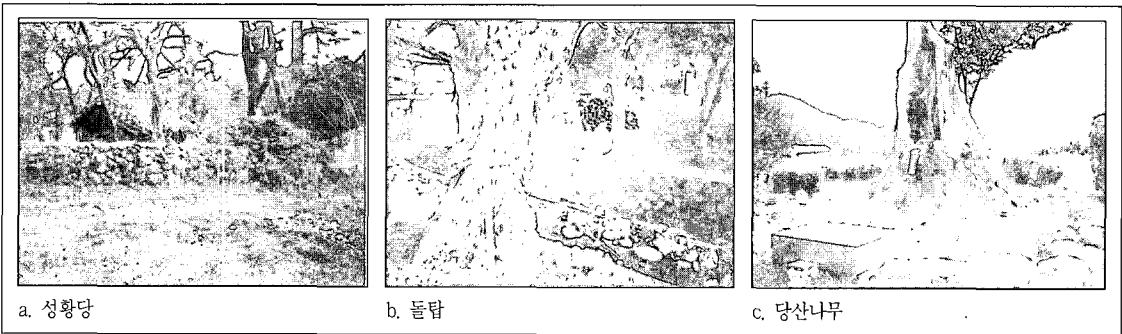


그림 4. 당산숲의 당산나무, 돌탑, 성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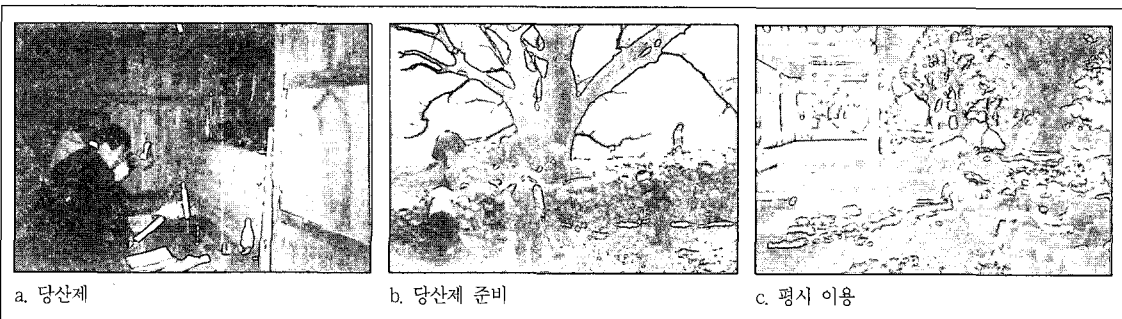


그림 5. 당산제를 비롯한 당산숲 문화

관에서 생물타리, 방풍림, 숲 띠는 생태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된다(Forman, 1995). 수목 띠, 생물타리, 방풍림은 우리 농촌에서도 비슷한 외형과 기능을 볼 수 있지만, 마을숲·당산숲에는 우리의 전통생활문화가 남아 있는 것이 외국과 다른 점이다. 경관을 구성하는 패치, 통로, 기질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농촌마을은 산지·농경지를 기질로 하고 하천을 통로로 하며, 마을과 마을숲·당산숲을 패치로 하는 구성을 보인다. 마을숲·당산숲은 하천통로에 연결된 녹지 패치라고 할 수 있다(그림 2~8 참조). 수변림으로 구성된 마을숲과 당산숲은 우리 농촌마을의 경관을 구성하는 중요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래 그림 6은 단양군 북하리인데 수변림인 마을숲·당산숲이 있는 하천경관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한 마을에 마을숲과 당산숲이 따로 있는 경우 당산숲은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며, 마을숲은 수해 방지 등 실제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하나의 패턴을 볼 수 있는데, 당산숲은 띠형, 장

방형 등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마을숲의 경우 대부분 띠형인 것을 볼 수 있다. 북하리의 경우 당산숲은 1,200 m²(40×30m) 면적의 작은 장방형이다(그림 6 참조).

북하리 마을숲(그림 6 참조)의 경우에는 제방 경사면에 1열로 식재된 선형이지만, 대부분의 마을숲은 제방 위 평지에 일정한 폭을 가진 띠형을 취하고 있다. 그림 8의 순천시 운용리는 마을숲이 따로 없고, 당산숲이 마을숲의 역할까지 하고 있다. 운용리의 경우에는 하천 양쪽에 모두 띠형으로 숲이 조성되어 있는데, 북하리 마을숲과 같이 제방의 한쪽 면에만 조성되어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 경우 숲의 위치는 북하리의 경우와 같이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이 있는 쪽에 놓이게 되는데, 그림 5c의 화순군 동산마을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북하리의 마을숲은 하천변 제방에 식재되어 제방을 튼튼히 함으로써 마을을 수해로부터 지키고 있었다. 2003년 태풍·수해 때 북하리 마을숲 위 도로에서 바라 본 하천은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속도와 양이 엄청 낮으나 제방을 허물지 못하였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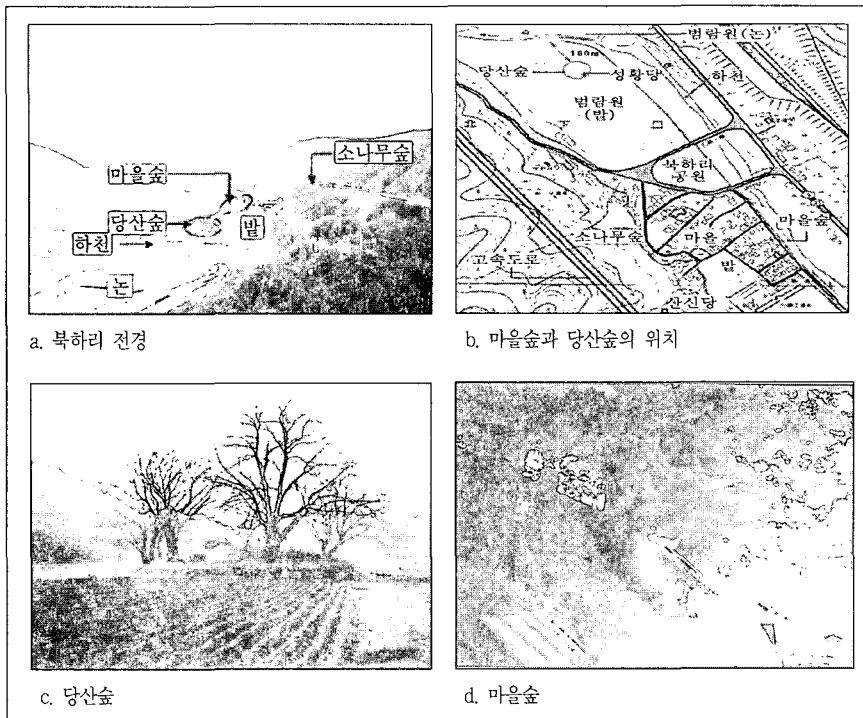


그림 6. 마을숲·당산숲이 있는 북하리

마을숲이 없었다면 제방은 수해에 견디지 못했을 것이며 마을은 오래전에 폐촌되어 사라졌을 것이다.

2. 농촌경관 관련 선진외국의 논점과 마을숲·당산숲의 위상

마을숲·당산숲의 객관적인 가치·기능을 이해하기 위해서, 농촌경관, 농촌발전 등과 관련하여 OECD, EU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주제들을 고찰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을숲·당산숲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가 살펴보았다(표 1 참조).

1)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농업·농촌은 작물생산을 통한 식량공급이라는 본질적 역할과 더불어 환경적,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동안 OECD 회의 등에서 논의된 이러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해외농업/국제기구/OECD/다원적 기능에 잘 소개되어 있다. EU는 사회안전망으로서 농촌유지의 필요성을 위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multifunctionality)을 강조하고 있는데, 다원적 기능에 대한 EU의 시각은 국토보전(재해방지), 환경보전, 경관형성, 문화전승, 지역사회의 유지 및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최찬호, 2000: 9-10). 다원적 기능은 나머지의 네 개 논점을 포괄하는 폭 넓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의 농촌정비사업은 전형적인 농촌경관의 보전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데, 김태곤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서 현재 프랑스에서 실시되

고 있는 국토경영계약(CTE)제도를 참고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는데, CTE는 물, 토양, 대기, 생물다양성, 경관·문화유산, 자연리스크, 에너지 등의 다원적 기능 항목을 갖고 있다(2002: 136).

EU 및 우리나라(농림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은 마을숲·당산숲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표 2 참조). EU의 '국토보전' 항목은 농지보호를 위한 마을숲·당산숲의 방풍림 역할과 연결되며, '환경보전' 항목은 수변림으로서 마을숲·당산숲의 환경보전·자연재해예방 역할, '경관형성' 항목은 경관림으로서의 마을숲·당산숲, '문화전승' 항목은 전통문화로서의 당산제를 들 수 있고, '지역사회유지·활성화' 항목은 마을공동체 축제로서 농촌마을 주민유대와 활력에 큰 힘을 불어넣는 당산제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즉, 마을숲·당산숲을 유지하고 있는 농촌마을은 EU에서 정의한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다섯 항목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권오상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관련하여 일반학계에서는 경제성 분석 위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

표 2.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마을숲·당산숲과의 관련성

유럽연합(EU)	대한민국	마을숲·당산숲과의 관련성
국토 보전	식량 생산	방풍림: 농지 보호
환경 보전	환경 보전	수변림: 환경보전 및 자연재해 예방
경관 형성	농촌 경관	경관림
문화 전승	전통문화유지	당산제: 전통 문화
지역사회 유지·활성화	농촌 활력	당산제: 마을 공동체 축제

표 1. 농촌경관 관련 외국의 주요 논점 및 마을숲·당산숲과의 관련성

구분	주요 관점	마을숲·당산숲과의 관련성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EU: 농촌 유지의 필요성을 위해 강조	다원적 기능 수행
자연형 하천	유럽: 하천경관으로서의 수변림 중시	하천 통로에 연결된 녹지 패치
농촌 어메니티	OECD: 농촌환경, 문화보전	성황당, 돌담, 당산목 등 3대 구성요소
경관 직불제	농촌경관 보전, EU: Traditional landscape and building 보존 등	농촌경관, 전통문화자원 보존
농촌 관광 자원과 보전 주제	유럽: 농촌경관 보전의 주체는 농민들 뿐임	당산숲·마을숲을 보전하고 있는 농촌주민들

으나, 다원적 기능의 금전적 가치 평가보다는 국제협상에서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당화해 줄 수 있는 실증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서의 연구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2006: 61). 김창길은 농산물 수입의 비중이 큰 국가의 경우에 다원적 기능은 농산물 무역자유화의 대응카드로 활용되는 핵심적인 근거이지만, 농산물 수출국이 납득할 수 있는 지표개발이나 실증분석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였다(2006: 73-74).

2) 자연형 하천

자연형 하천은 하천이 지닌 본래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조성된 하천을 가리키는 것이며,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란 하도, 저수로 등 하천의 물리적 기반을 자연형으로 복원하여 수질 개선을 위한 자정기능, 동식물 서식처로서 생태적 기능, 심미적 공간으로서 친수 기능을 제고하고 하천의 이·치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다(환경부, 2003). 유럽의 경우 1970년대부터 자연형 하천 정비에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하천의 생태학적인 재생을 위한 수단으로 수변의 식물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 스위스 등지에서는 근자연형 하천 공법이 실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하천정비의 기본 방침은 소하천에 연결된 숲을 조성하고 아산과 도심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우효섭, 1996: 33-34).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선대들이 각고끝에 경험으로 발견한 호안림 등의 자연하천공법, 이것이 바로 지난 30~40여년 동안에 유럽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자연공법이라는 것을 지

적하고 있다(정동양, 1995: 83). 미국 농무성에서는 녹색 인프라 구조(green infra structure)로서 하천변 수변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USDA National Agroforestry Center, 2002), 호주(2003)는 수변림의 생태기능을 특히 중시하여 자연에 가까운 수변림 관리에 노력하고 있다. 일본은 수변림으로 조성된 유럽 하천의 예를 통하여 자신에 맞는 하천관리 방법을 찾으려 하고 있다. 농촌경관에서 생울타리, 방풍림은 생태학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하천 통로는 많은 경관요소들 가운데 가장 역동적인 장소로서, 하천 주변의 식생은 하천제방으로 흘러 들어오는 양분의 흐름을 억제하고 침식을 방지하며 토양유기물을 공급하고 물고기의 서식처를 제공하는 등 하천생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Forman, 1995).

최근 발표된 정부 부처의 하천관리 방안은 자연형 하천 정비를 하겠다는 것으로, 그 내용을 보면 수변림인 마을숲·당산숲이 인식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표 3 참조). 예로, 건설교통부는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을 통해 하천에서 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한 곳은 ‘보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 관리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대상이 곧 마을숲·당산숲이 있는 하천인 것을 알 수 있으나, 마을숲·당산숲은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지 않은데, 이것은 환경부나 행정자치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건설교통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에서 구하고자 하는 자연형 하천의 모습은 마을숲·당산숲이 있는 하천경관에서 찾을 수 있음이 확인된 바 있다(최재웅과 김동엽, 2005a: 53). 그림 6은 수변림인 마을숲·당산숲이 있는 하천경관을 보

표 3. 정부의 자연형 하천 관리방안 및 마을숲·당산숲과의 관계

부처	지침·시책	주요 내용(기본방침)	비고	마을숲·당산숲과의 관계
건설교통부	친환경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지침(2005. 1)	하천에서 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한 곳은 ‘보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계획수립시 지역주민 등과 지역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마을숲·당산숲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자연친화적 하천 관리지침(2002. 1)	하천환경을 정비한다는 것은 지역의 문화 사회적 매력과 자연적 매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함	수변 조사 내용 제시	
환경부 수질보전국	2004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추진지침(2003. 6)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계획수립시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 생태와 하천의 물리적 환경과의 관계를 조사함	생물학적 지표 위주의 하천 생태계 관리	
행정자치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1999. 8. 일부 개정)	안전성 확보, 생태계 서식환경 고려, 아름다운 소하천 본래의 경관보전	-	

여주고 있는데, 하천이 우리의 정서와 문화적 삶에 기여해 왔던 흔적을 마을숲·당산숲을 통해 찾을 수 있다.

3) 농촌 어메니티

농촌 어메니티는 야생지, 경작지 경관, 역사적 기념물, 문화적 전통을 포함해 자연적인 것이든 인위적인 것이든 농촌지역에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모습들을 가리킨다. 어메니티는 사회적, 경제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인식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골 풍경과는 구별된다. 개인, 지역공동체, 사회는 그러한 장소와 전통, 즉 어메니티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이러한 효용과 그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농촌 어메니티는 농촌개발을 위한 중요한 자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OECD, 1999).

OECD는 1997년에 자연에 대한 사람의 기여 정도에 따라 어메니티를 세 가지 범주로 나눌 것을 제안한 바 있는데, 어메니티의 범주·내용은 표 4와 같다(OECD, 1999). 여기에서 마을숲·당산숲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OECD의 세 가지 범주 중 두 가지의 내용을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어메니티」 중에서 '농업활동에 의해 형성된 농촌경관'은 농지보호를 위해 방풍림으로 조성된 마을숲·당산숲이 해당되며, '전통방식의 어로 활동'은 어부림으로 조성된 남해군 물건리의 당산숲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놀이나 하이킹 등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숲 등'은 단양군 북하리의 마을숲(그림 6 참조) 등이 예이다. 세 번째 범주인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메니티」 중에서 '역사적 기념물'은 돌탑, 성황당, 당산나무 등 당산숲의 3대 경관 구성요소를 들 수 있다. '마을축제

등'은 당산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4) 경관직불제

주 벨기에 대사관 겸 주 구주연합대표부가 농림부를 통하여 EU집행위원회가 2003년 2월 19일 채택하고, 2004년 1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한 「EU 집행위 규정」을 요약 보고한 『EU회원국의 농업보조 집행방법 개선』 내용을 보면, EU집행위는 각 회원국이 EU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자국 농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집행위의 제안 내용에 포함된 회원국 자체 지원이 가능한 주요 사업 및 범위는 농가 투자 지원, 전통 경관 및 건물 보존, 젊은 농업인 지원이다. EU 등 선진 외국은 농업·농촌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의 전통적인 농촌경관 등을 반영한 경관직불제 등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위의 내용에서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전통경관 및 건물 보존"과 "환경보존을 위한 농가 투자 지원"에 대한 사항이다. 이것은 우리의 전통경관 생태자원인 마을숲·당산숲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성황당과 돌탑 등을 포함한 마을숲·당산숲의 보존·관리에 대해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근거를 EU의 규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경사지의 다면적 기능 증진을 위해 직불제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효과가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직불제 시행 후 2004년 9월에 「중산간지역 등 직접지불제도에 관한 집락협정 대표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0%의 대표자가 그 효과를 인정하였다. 직접지불 대상지에는 우리의 마을숲과 비슷한 개념인 옥부림(屋附林)이 포함되어 있다(일본 농림수산

표 4. OECD의 어메니티 내용과 마을숲·당산숲과의 관련성

범주	내용	마을숲·당산숲과의 관련성
거의 자연 그대로의 어메니티	원시림, 사막의 야생지 등	-
인간과 자연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된 어메니티	농업 활동에 의해 형성된 농촌 경관	당산숲, 마을숲
	전통 방식의 어로 활동	어부림으로서의 당산숲, 마을숲
	놀이나 하이킹 등을 위해 관리되고 있는 숲 등	마을숲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어메니티	역사적 기념물	당산숲의 3대 경관 구성요소
	마을 축제 등	당산제

성 홈페이지 자료: http://www.maff.go.jp/www/pres/s/cont2/20040819press_5b.pdf; <http://www.maff.go.jp/hakusyo/nou/h16/html/index.htm> 참조)

농림부(2004a)에서는, 현재 경관보전직불제의 시행 대상이 주로 작물재배에 의한 경관 조성 및 유지를 하는 농가에 한정되어 있으나, 지원대상을 고려할 때 추후 보전되어야 할 대상으로 고유의 지역경관, 전통문화자원, 농촌생활경관 등 농촌경관의 구성요소 전반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밝힌 바 있다. 수백 년 동안 어려움 속에서도 마을숲·당산숲을 지키며 보전해 온 농산어촌의 마을들은 이러한 보조금의 수혜 대상으로 적극 고려되어야 한다.

5) 농촌관광자원과 보전 주제

농촌관광은 갈수록 어려워져 가는 농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관광산업으로 농촌을 지키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농촌관광을 시작한 영국, 스위스 등의 유럽은 “농촌을 전통적인 모습 그대로 지킬 사람은 농민들 뿐”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하고 있다. 김용근(2004: 29-30)은 농촌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략적인 접근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농촌은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본래의 기능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농촌관광의 기능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1) 농업의 본래 기능이 되살아나야 한다, 2) 농촌의 환경이 청정해야 한다, 3) 환경적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재배하는 농사법을 장려해야 한다, 4) 향토문화자원을 발굴하고 재해석하여 전통적인 공동체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5) 농촌관광은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을 가꾸는 결과물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농촌관광에서 관광자원의 중심은 경관자원이다. 마을숲·당산숲은 본래 가지고 있는 경관적·문화적 가치로 인해 관광자원으로서의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마을숲·당산숲 공간이 잘 보전·활용되면 그것이 곧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경관·문화이미지로 국내외에 인식되어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다. 호주, 뉴질랜드 등과 같이 방대한 규모의 천연 자연경관이 있는 나라가 추구하는 주된 관광행태가 「생태관광」이라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문화경관을 활용한 『문화생태관광』이 되

어야 할 것이며 그 중심에 마을숲·당산숲이라는 훌륭한 관광자원이 있다.

일본에서는 ‘아름다운 국가만들기 정책대강’, ‘관광입국행동계획’, ‘도시재생비전’이라는 정책이 2004년에 경관법이 제정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고 한다(오민근, 2005: 25-31). 일본의 경관법이 의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전통경관을 정비하고 국가 이미지를 높임으로써 외국관광객을 불러 들여 관광부국을 이루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계적인 관광상품이 된 일본의 축제인 마쓰리에 못지 않은 것이 우리의 ‘정월대보름 축제’라고 한다. 일제강점기, 도시화 등을 거치며 사라져 가던 대보름 축제가 근래에 다시 살아나 이제 전국적인 축제로서 관광상품으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정월대보름 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원천이 당산제이고, 그 당산제가 열리는 곳이 당산숲이다(최재용, 2004a: 66-67). 당산제는 정월대보름 몇 시간 전인 14일 밤에 당산숲에서 당산신(堂山神)에게 올리는 마을 축제로 거행되며, 정월대보름 축제는 15일 주·야간에 마을 곳곳에서 열리는 마을잔치로 열리는 것이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많은 외국인들의 이야기는 “한국과 한국 농촌의 매력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 농촌마을 주민들이 잘 보전·관리하고 있는 마을숲·당산숲은 특히, 외국관광객들에게 매력 있는 전통경관자원으로 소개되면서 국가 이미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정부의 농촌경관 관련 시책·사업과 마을숲·당산숲의 관련성

근래 정부기관의 농촌에 대한 비전 논의를 보면 “농어촌은 자연환경과 전통문화가 어우러진 쾌적한 공간으로 탈바꿈 한다”(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 2002)는 것과,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와 비전을 제시하기 위한 ‘농업·농촌종합대책’(농림부, 2004b)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서 막대한 기반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것에 대한 다른 견해로서, 여가·휴양 공간으로서의 농촌의 기능이 4만개의 마을에 모두 유지되어야 하는가? 보전해야 할 가치가 있는 전통문화가 유지되고 있는 마을이 실제 얼마나 있는

가? 등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재 정부의 농촌경관 관련시책에는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데, 그러한 시책의 내용 및 마을숲·당산숲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여러 부서에서 '경관', '숲' 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우리 농촌경관에 대한 시각이 막연하고 포괄적이며,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못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주요 시책을 보면, 농림부의 경관보전직불제는 경관작물을 심으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근거법령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농산어촌 경관의 보전)를 들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경관법안'은 경관계획의 수립, 경관사업의 시행, 경관협정의 체결과 지원 등을 통해 보전가치가 높은 경관은 철저히 보호하고, 경관이 훼손된 지역에 대해서는 양호한 경관을 새로이 조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관련 학회와 행정부서 등과의 의견 수렴이 없었으며 농촌경관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2005: 15-19, 69)는 국토환경관리종합계획(시안)에서 생태경관보존관리지역 설정, 지역 고유의 경관 형성, 수변 경관관리도모 등을 언급하고 있으나 아직은 포괄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농특위(2005)에서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을 논하면서 마을숲의 중요성을 인식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정부 각 부처, 지자체의 농촌경관 관련 사업이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마을숲·당산숲의 용어는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으나, 그 내용은 마을숲·당산숲과 관련이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표 6 참조). 마을숲·당산숲을 유지하고 있는 마을은 농촌개발과 관련된 정부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활동과 노력에 직

접 연관되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2004b) 등에서 농어촌지역 활성화와 주민복지 확충의 문제는 경관보전 등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CTE, 일본의 경관보전 마을협약 등을 사례로 삼아, 지자체와 주민간의 '경관협약'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로부터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는 마을숲·당산숲에 대해 '마을숲·당산숲 경관협약' 등을 도입한다면 국토관리 측면에서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농림부는 농촌활력화와 농촌경관 보전을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자연생태우수마을사업을 하여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이 잘 보전된 마을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마을숲·당산숲이 있는 마을이 많이 선정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의 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문화자원, 역사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의 의지가 있는 마을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2005년 선정된 7개 마을 중 강원도 강릉시 학산마을은 오독떼기, 학마을 가꾸기로 선정되었고, 원주시 회춘마을은 원주매지농악 마을로서 선정되었는데 두 마을 모두 당산숲을 유지하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경우는 앞의 자연형 하천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며, 산림청과 (사)생명의숲국민운동에서 2004년부터 전통마을숲 복원운동을 하고 있는데, 산림청은 내년부터 많은 예산을 들여 전통마을숲 복원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2006). '마을숲의 문화재 지정사업'의 경우 마을주민들은 "우리 스스로 이제까지 보호·관리해 왔으므로, 여러 가지 제약과 재산권 침해가 예상되는 문화재 지정은 필요 없다"며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아름다운 어촌 가꾸기사업'은 방풍림으로서

표 5. 정부의 농촌경관 관련시책 및 당산숲·마을숲의 인식 여부

부처	시책	주요 내용	마을숲·당산숲과의 관계
건설교통부	경관법안(2006. 7. 18 국무회의 통과)	경관계획 수립, 경관사업 시행, 경관협정 체결, 경관위원회 설치 등	마을숲·당산숲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환경부	국토환경관리종합계획(2006~2015)	생태경관 보존 관리지역 설정 등	
농림부	경관보전직불제(2005~2007 시범사업)	경관 작물을 심으면 보조금 지급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2005. 12. 21)	마을숲은 농촌경관의 핵심	마을숲의 중요성 인식

표 6. 정부의 농촌경관 관련사업 및 마을숲·당산숲과의 관련성

부처	사업명	내용	관련성*
농림부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2002~)	농촌경관 보전, 농촌 활력화	◎
환경부	자연생태우수마을사업 물환경관리 기본계획(2006~2015)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이 잘 보전된 마을 지원 수변 생태벨트(Riverine Eco-belt) 조성 등	◎
문화관광부	문화·역사마을 가꾸기사업(2004~2009)	문화자원, 역사자원을 갖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주민의 의지가 있는 마을 지원	◎
문화재청	마을숲 문화재 지정사업	마을숲을 문화재로 지정·보호	◎
산림청·(사)생명의 숲 국민운동	전통마을숲 복원사업(2004~)	마을숲 복원 지원	◎
해양수산부	아름다운 어촌100선	해안방풍림이 있는 마을이 주요 대상	◎
건설교통부	친환경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2005)	생태·경관·역사·문화자원이 우수한 하천은 "보전지구"로 지정하여 특별관리	◎
농촌진흥청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2002~)	생활환경개선, 전통문화보전	○
지방자치단체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농어촌관련사업	주거환경개선, 농촌관광	◎

* ◎: 직접적이고 많은 관련이 있음, ○: 보통

해안림이 있는 마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마을숲·당산숲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사업이 많아지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그 가치가 제대로 인식되지 않고 마을숲·당산숲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자료의 축적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된다면 원형 훼손 등 많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최재웅과 김동엽, 2005b: 106). 현재 특히, 산림청과 문화재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 농산어촌의 마을숲·당산숲은 전통문화자원으로서, 어떤 사업 이전에 전국적인 실태조사·연구가 정부의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 등의 공동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관련이 있는 농촌진흥청이 아직 인식 부족 상태이나 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한편, 농촌경관 관련사업과 관련하여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지방자치로 인해 많은 권한이 지자체로 이전되고, 각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는 이들 지자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자체의 경관조례는 강원도가 2000년에 '강원도 경관형성조례'를 제정한 것이 선두이며(이희정, 2005: 76), 강원도의 '새농어촌건설추진운동', 전남 장흥군의 '녹색농촌마을운동' 등은 중앙정부의 사업과는 별도로 지자체 스스로 농촌경관 관련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인데, 예를 들면 장흥군의 녹색농촌마을이면서 해맞이 명소인 남포리(정남진)의 소등섬은 천연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는 당산숲이다(그림 7a 참조). 당산제 설명 안내판은 마을에서 제작한 것으로서 당산제의 유래 및 당산숲의 보호와 관련하여 마을주민들이 관광객들에게 당부하는 글이 잘 적혀 있다(그림 7b 참조). 그림 8a는 농촌진흥청의 2005년도 농촌전통테마마을인 전남 순천시 운용리의 당산숲인데, 그들이 있는 하천에 둘러 온 외지인들 모습이다. 그러나, 이들은 이곳이 일반 유원지와는 품격이 다르며 잘 보호해야 할 전통숲인 당산숲이라는 인식이 없는데, 돌탑과 당산나무가 차량과 외지인들로부터 아무런 보호장치없이 노출되어 훼손되고 있다(그림 8b 참조). 이들은 데리고 온 자녀들에게 이곳이 「환경교육과 전통문화교육의 장」인 당산숲임을 알려 주지 못한다.

4. 농촌경관 관련시책·사업의 문제점 고찰

1) 농촌 전통경관의 중요성

농림부, 건설교통부, 환경부 등이 관련된 농촌경관 관련시책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 농촌에서 보전 가치가 있는 전통경관이 무엇이며 얼마나 남아 있는지 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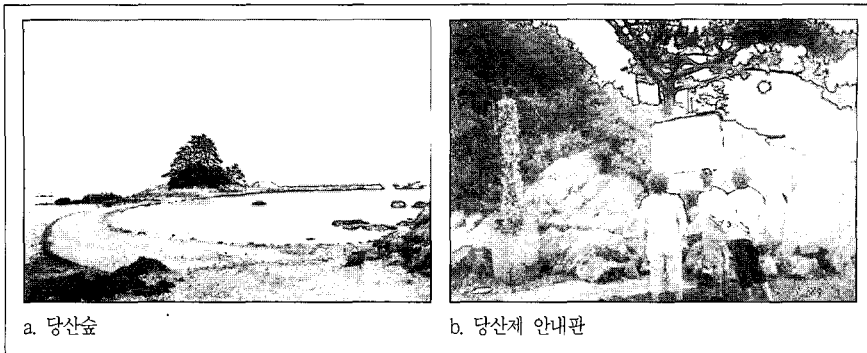


그림 7. 장흥군 남포리의 당산숲과 당산제 안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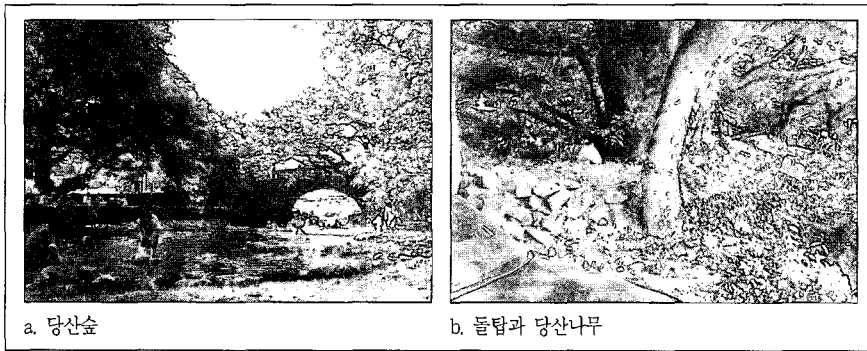


그림 8. 순천시 운옹리 당산숲

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앞에 언급된 바와 같이 농촌경관의 보전·관리에 관한 어려움은 우리의 농촌을 특징지을 만한 대표적인 경관이 무엇인지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마을숲을 비롯하여 농촌의 대표경관을 찾는 것 뿐 아니라 그것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김덕현, 1986; 김학범, 1991; 장동수와 이규목, 1997; 윤영환 등, 1998; 박재철, 1999; 최재웅과 김동엽, 2000; 2003; 2005a; 2005b; 이창석과 유영한, 2001).

다원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업·농촌의 환경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한 OECD, EU 등 국제적인 논의의 핵심은 자국 농촌의 문화경관, 전통경관에 대한 존중·보전 노력과 그 방법론 연구이다. 이러한 세계의 흐름을 잘 읽고 우리 농촌의 전통경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국제논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위상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경관계획의 수립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며, 문화경관을 의미하

는 농촌경관이 무분별한 개발행위에 훼손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전 국토를 대상으로 양호한 경관자원을 찾는 기초연구가 필요하다(변병설, 2001: 138, 147). 이러한 농촌경관의 중심에 마을숲·당산숲이 있다.

2) 농촌경관 관련시책의 문제점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건교부, 환경부, 농림부 등이 관련된 농촌경관 관련시책에서 경관법안과 경관보전직불제는 관련 연구 결과의 축적이 없고, 관계기관의 의견수렴이 부족하며, 농촌경관·전통경관에 대한 전제가 부족한 가운데 만들어져 제도의 현실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2005; 농촌경관 전문가 Workshop, 2005). 건설교통부의 경관법(시안)은 2005년 8월 '경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표되었는데, 종합토론에서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공청회에 참가한 농림부, 환경부, 문화관광부 등 정부 부처와 한국도시설계학회 등의 토론자들은 대체로

경관법(시안)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내었다. 관련 부처의 토론내용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만들지 못한 점, 농촌경관에 대한 고려가 미흡한 점, 전통경관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점에 대한 지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서 개발 행위 시 경관심의를 도입하고 있는데, 우리 자연경관에서 100년 후에도 보전될 경관, 보전해야 할 경관은 많지 않다. 지금까지 훼손된 경관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것을 찾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경관법(시안)의 주요 지적사항으로 우리 전통경관의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그 가치를 찾으려는 노력없이, 소수의 사람들이 2004년 제정된 일본의 경관법을 기초로 여론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급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교통부의 경관법(시안) 26조를 보면 'cultural landscape'을 풀이한 '문화경관'이라는 용어 대신 '문화적 경관'이라는 일본식 표기를 볼 수 있다. 일본 국토교통성 홈페이지 자료(<http://www.mlit.go.jp/crd/city/plan/townscape/keikan>)에는 일본의 '경관법 개요', '경관법 조문'이 소개되어 있다.

농림부(2006)에서는 '농촌경관종합대책 수립방안(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농특위에서 마을숲을 농어촌의 핵심경관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건교부의 경관법 제정·시행에 대응하여 농촌분야에 대한 경관계획 수립기준을 마련코자 하고 있다. 경관법안은 농촌경관이 포함된 것으로서, 직·간접적으로 농촌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요한 법안이므로 그 수립은 절차, 방향 등이 올바르게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정책입안자·참여자 등에 대한 정책실명제가 도입되어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법 시행 후의 혼란과 왜곡을 막기 위해 현재 제출된 경관법안은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 전면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농림부의 경관보전직불제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 '경관보전직불제' 등 일련의 농촌경관 관련정책 시도는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종합적인 경관 관리체계가 미비한 까닭에 충분한 결실을 얻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성주인, 2005: 107), 농촌지역 전체에 대한 경관 고려가 부족하고, 경관관리의 실현방법이나 체계로는 미흡하다(윤진욱, 2005: 169). 송미령과 박경철(2005: 122, 135)은 현재 이루어지는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시

범적 정책 프로그램은 자칫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순기능보다 선언적 제도화이거나 농가 지원을 위한 일회성 프로그램에 그치거나 혹은 오히려 농촌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는데, 무슨 작물을 심으면 얼마를 지급한다는 방식으로 일률적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오히려 좋은 농촌경관의 모습이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농림부의 경관작물 재배에 의한 경관보전직불제가 농촌경관 정책으로 미흡한 점은 매밀, 유채, 코스모스, 해바라기, 목화, 야생화 등의 경관작물을 심어야만 보조금을 지불한다는 것이다. 경관의 가치와 질, 관리문제, 경관 지속성 및 다원적 기능 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농촌에 남아 있는 '전통경관'을 지키려는 노력이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강원도 평창 지역의 매밀이나 제주도의 유채와 같이 지역적으로 특화된 작물은 적절한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아무 상관이 없는 농촌 지역에 작위적으로 꽃을 심는 것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경관보전직불제에서 보전해야 할 경관은 일년생 꽃에 의한 것이 아니고 농촌의 전통경관을 말함이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촌경관 전문가 Workshop 자료집(2005)을 보면 농촌경관보전직불제는 WTO 농업협정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른 지불규정 때문에 목분류 등은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에서 제외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EU집행위는 『EU회원국의 농업보조 집행방법 개선』을 통해 각 회원국이 EU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서도, "전통경관 및 건물 보존", "환경보존을 위한 농가 투자 지원"에 대해서는 자국 농업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규정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시범사업 실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직불제 대상작물의 범위 및 기준을 재정립하여 확대 추진하겠다는 현재의 경관보전직불제는 이러한 농촌의 전통경관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된다. 일년생 꽃을 심는 일은 지역 차원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2007년까지 기다릴 만큼의 여유가 우리 농촌에는 없다. 현행 경관보전직불제의 문제 중 하나는 술한 고난속에서도 우리의 전통경관을 버리지 않고 유지·관리하여 국토환경과 전통문화를 지켜온 농촌마을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하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데, 이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면 재검토하여 방향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3) 농촌경관 관리의 주체

실질적인 농촌경관 관리자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그곳에 살고 있는 농촌주민들이다. 농촌경관이란 오랜 세월을 거쳐 농촌의 문화와 함께 형성되는 것으로서, 행정기관이 만들겠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조성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자문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에서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에서 '공간의 질과 삶의 질' 향상을 언급하면서 마을숲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정책추진의 기본원칙』은 "지역사회·주민이 자기책임 원칙 하에 주도하고, 정부·지자체는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 행정기관도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을 전통적인 모습 그대로 지킬 사람은 농민들 뿐이라는 앞서가는 의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

IV. 결론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촌마을 마을숲·당산숲의 실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치를 재조명함으로써, 농촌경관 관련시책·사업 등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농촌발전을 위해 농촌경관, 농촌개발 등과 관련하여 OECD, EU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농촌경관 관련 주요 이슈 및 정부 각 부처의 농촌 관련 사업에서 마을숲·당산숲이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농업·농촌의 환경과 문화를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자국 농촌의 문화경관, 전통경관에 대한 존중·보전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다. 마을숲의 실체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어떤 조치보다도 마을숲에 깃들여 있는 문화적 의미와 행위를 되살리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마을숲·당산숲은 우리 농촌의 문화경관, 전통경관에 대한 존중·보전 노력을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마을숲·당산숲의 지속적인 보전·발전을 위해서는 어릴 때부터 마을숲·당산숲의 고마움과 소중함을 알도록 어린이들에게 잘 교육시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농림부에서 밝

힌 바와 같이 농촌공간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농촌개발의 과제이며, 농촌 어메니티 보전 노력의 결실이 농촌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 마련이 필요하다.

결론으로, 마을숲·당산숲은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자연형 하천, 농촌 어메니티, 경관 직불제, 농촌관광자원 등의 기능을 모두 갖춘 복합체로서, 우리나라 농산어촌 발전, 국토경관·국토환경 보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수백년 이상 마을숲·당산숲을 가꾸고 지켜옴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와 자연환경을 지키고 있는 농산어촌 마을과 주민』들에 대해 지원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도시민의 인식 향상과 함께 마을주민들이 농촌경관 보존의 사명을 잘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인용문헌

1. 건설교통부(2002) 자연친화적 하천관리지침.
2. 건설교통부(2005) 친환경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3. 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6)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기본계획.
4. 권오상(2006)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이론 발전 및 가치 예측. 한국농업경제학회·한국농업정책학회 2006년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Ⅰ), pp. 37-67.
5. 김덕현(1986) 전통촌락의 동수에 관한 연구-安東 내앞마을의 開湖松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13: 25-33.
6. 김용근(2004) 21세기 농촌관광의 전망과 대응전략. 농촌자원과 생활지 97: 27-31.
7. 김창길(2006)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 한국농업경제학회·한국농업정책학회 2006년 하계 공동학술대회 발표논문집(Ⅰ), pp. 68-94.
8. 김태곤(2002) 농촌지역 특성과 지원정책 방향. 농업·농촌의 공익적기능 가치평가와 활용 심포지엄 자료집, pp. 119-140.
9. 김학범(2005) 마을숲과 문화. 전통마을숲의 이해와 복원운동의 방향 심포지엄 자료집, pp. 5-22.
10. 김학범(1991) 한국의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농림부(2006) 농촌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위한 농촌경관 종합대책 수립방안(안).
12. 농림부(2004a) 경관보전직불제 시범사업 시행방안 연구.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 보고서.
13. 농림부(2004b) 농업·농촌종합대책.
14.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2)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활로 보고서.
15.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005) 농어촌 복합생활공간 조성방안.
16. 대한주택공사, 한국도시설계학회, 한국조경학회(2005) 경관법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7. 목정훈(2005) 미국의 도시경관 관리방향. 경관법제정에 따른 도시계획 법체계의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 자료집, pp. 31-47.
18. 박재철(1999) 농촌경주생활권내의 마을비보숲과 마을곶터숲의 비교 고찰-진안군 지역을 사례로-. 한국조경학회지 27(3): 32-38.
19. 변병설(2001) 친환경적 농촌관리전략: 농촌경관을 중심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세국토연구협회 공동개최 세미나 농촌계획, 어떻게 할 것인가- 자료집, pp. 129-149.
20. 성주인(2005) 농촌경관 관리실태와 정책방안. 농촌경관 전문가 Workshop 자료집, pp. 105-159.
21. 송미령, 박정철(2005)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정책 동향과 시사점. 농촌경제 28(3): 121-137.
22. 오민근(2005) 일본의 경관법 제정 및 전개, 그리고 우리의 할 일. 경관법 관련 워크샵 자료집, pp. 7-67.
23. 우효섭(1996) 지역사회에서 소하천의 역할과 자연형 하천 정비의 의의. 세계 물의 날 기념 원천천 살리기 심포지엄 자료집, pp. 17-39.
24. 유제현(1979) 농촌경관의 형태적 연구-여주·이천지방을 중심으로-. 지리학논총 6: 96-115.
25. 윤영환, 김학범, 장동수, 김정태(1998) 강원도 동해안지역 경주지 구성요소로서 풍수(風叢)의 경관과 그 효용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6(1): 59-81.
26. 윤진옥(2005) 어메니티 증진을 위한 농촌경관 보전 및 관리 방안 연구. 농촌경관 전문가 Workshop 자료집, pp. 161-209.
27. 이상훈(2005) 마을 숲의 사회학적 의미-진안 지역을 중심으로-. 전통마을숲의 이해와 복원운동의 방향 심포지엄, pp. 23-51.
28. 이정형(2005) 일본에서의 경관시책과 경관법 제정 및 우리나라의 시사점. 경관법제정에 따른 도시계획 법체계의 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 자료집, pp. 17-29.
29. 이창석, 유영한(2001) 한국의 문화경관, 그 실제, 변화와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가치 평가. 한국생태학회지 24(5): 323-332.
30. 이희정(2005) 국토계획법과 경관법의 상호관계와 역할. 경관법 관련 워크샵 자료집, pp. 71-95.
31. 장동수, 이규목(1997) 경주·포항시 전통도시숲(읍수·임수)의 보존과 관리.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5(1): 1-15.
32. 정동양(1995) 독일·스위스의 근자연형 하천공법.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하천환경 심포지엄 자료집, pp. 56-92.
33. 최일홍(2005) 경관법 추진 배경과 과제. 경관법 제정에 따른 도시계획 법체계의 개선방향 모색 세미나 자료집, pp. 1-15.
34. 최재용, 김동엽(2005a) 하천경관으로서 당산숲·마을숲의 경관 생태학적 기능 고찰. 환경정책연구 4(2): 31-55.
35. 최재용, 김동엽(2005b) 농촌경관 보전·활용을 위한 당산숲·마을숲의 관리실태 연구.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 2005년 추계 학술논문 발표집, pp. 106-111.
36. 최재용(2004a) 농촌관광 인프라-당산숲. 농촌자원과 생활지 98: 63-67.
37. 최재용(2004b) 마을숲 문화가 있는 아름다운 우리 농촌마을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편, "한국의 전통생태학"). 서울: 사이언스북스, pp. 378-407.
38. 최재용, 김동엽(2003) 농촌 문화경관으로서 강릉시 구정리 마을숲의 경관 특성. 국토계획 38(4): 171-181.
39. 최재용, 김동엽(2000) 마을숲문화가 있는 농촌 마을숲의 구조 및 보전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정원학회지 18(3): 51-64.
40. 최찬호(2000) WTO체제하 농업의 다원적기능 유지 전략. 농업의 다원적기능 심포지엄 자료집, pp. 1-28.
41.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5) 국토환경관리종합계획(시안) 공청회 자료집.
42. 행정자치부 국립방재연구소(1999)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43. 환경부 수질보전국(2003) 2004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추진지침.
44. Choi, J. U. and D. Y. Kim(2004) The multifunctionality of Dangsan forests in rural communities in Korea. The 41st IFLA World Congress Proceeding, Taipei: 2004 IFLA Taiwan Organizing Committee, pp. 434-445.
45. Takeuchi, K., R. D. Brown, I. Washitani, A. Tsunekawa, and M. Yokohari(2003) Satoyama: the Traditional Rural Landscape of Japan. Berlin, Heidelberg, New York: Springer.
46. Land & Water Australia(2003) National Riparian Land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
47. OECD Joint Working Party on Agriculture and the Environment(2003) First Questionnaire for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48. OECD(2001) Environmental Indicators for Agriculture: Volume 3 Methods and Results.
49. OECD(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오현석, 김정섭(역),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서울: 새물결, 2002.
50. Forman, R. T. T.(1995) Land Mosaics: the Ecology of Landscape and Regions. 홍선기, 김동엽(역), 토지모자이크-지역 및 경관생태학-.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0.
51. USDA National Agroforestry Center(2002) Agroforestry: Working Trees for Communities.
52. <http://www.maf.go.kr/index.jsp>
53. <http://www.maff.go.jp/hakusyo/nou/h16/html/index.htm>
54. http://www.maff.go.jp/www/press/cont2/20040819press_5b.pdf
55. <http://www.mlit.go.jp/crd/city/plan/townscape/keikan>

원 고 접 수: 2006년 7월 10일

최종수정본 접수: 2006년 8월 21일

3인익명 심사필